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공격성에 관련된 자존감, 수치심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한 세 영¹⁾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보이는 공격성의 특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공격성의 차이를 밝히고, 공격성과 자의식적 정서(자아존중감과 수치심)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상관관계 또한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며, 각 집단의 자의식적 정서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대전시에서 표집된 359명의 12세부터 15세 사이의 초기청소년이며, 이들은 187명의 남아와 172명의 여아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가해피해아의 적의적 공격성이 가해아보다 높았다. 둘째, 가해아의 자아존중감이 가해피해아보다 높았고, 가해피해아의 수치심은 가해아보다 높았다. 셋째,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은 가해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수치심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은 가해피해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가해집단의 경우,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적의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가해피해집단의 경우,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수치심이 적의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요어 : 가해집단, 가해피해집단, 공격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수치심

1)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I. 서론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 초기로 진입하는 시기의 큰 특징은 자아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이 이루어지는 한편, 부모와의 관계변화와 더불어 또래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의식하게 되어 자의식적 정서가 분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부모에게 원하는 바나 요구하는 바가 변화하여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아동기와는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또래관계가 확장되고 또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또래 괴롭힘이 초기청소년의 대표적인 문제 행동으로 대두된 이래, 괴롭히는 아동과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가해아와 피해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가해아와 피해아만을 구분하던 단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아인 동시에 또래를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가해아인 아동을 포함하여 괴롭힘 행동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초기 연구자인 Olweus(1978)은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아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지의 여부에 따라 도발적 피해아(provocative victims)와 수동적 피해아(passive victim)로 명명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접근을 수용하여(Schwartz, Dodge, Pettie, & Bates, 1997; Schwartz, Proctor, & Chien, 2001) 공격적 피해아와 비공격적 피해아로 나누었다(Olweus, 1978; Perry, Kusel, & Perry, 1988). 국내에서도 이러한 개념과 분류를 적용하여 공격적 피해아와 비공격적 피해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

졌다(박보경, 한세영, 최미경, 도현심, 2004; 심선보, 2000). 이러한 집단분류와 명명은 피해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나, 관점을 바꾸어보면 공격적 피해아는 피해를 당하는 피해아임과 동시에 공격을 하는 가해아일 수가 있다. 즉 가해행동을 하되 피해도 함께 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가해아인 것이다.

그동안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동시에 보여주는 집단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해아와 피해아의 개인적 인성특성 및 가족관계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연구결과, 가해 및 피해행동을 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양육과 역기능적인 발달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으나 또래를 괴롭히는 공격적 성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보인 것이 사실이다.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 즉, 공격적 피해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가장 강하고 비행성향도 가장 강하다는 황성숙(1999)의 연구결과가 있으나, 그 역시 공격성의 속성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가학적인 행동을 공통의 요소로 갖는 가해아와 공격적 피해아 집단 중 한 집단에서는 공격적 성향만이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다른 집단에서는 공격적 성향이 피학적 성향과 공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집단의 공격성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행동의 특성 자체로는 피해행동과 반대되는 성향으로 인식되는 공격적 성향이 피해행동과 동시에 나타나는 가해피해집단은 피해행동과 공존할 수 있는 공격성의 특징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소수의 외국 연구에 의하면 도구적인 공격

성향을 보이는 가해아(Dodge, 1991)와 달리,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 주로 과잉활동적이고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안과 우울이 높게 보고되었다(Kumpulainen, Rasanen, Henttonen, Almqvist, Kresanov, Linnam Moilanen, Piha, Puura, & Tamminen, 1998; Kupersmidt, Patterson, & Eickholt, 1989; Rigby, 1998; Schwartz, 2000). 또한 충동적이고 자기조절력이 약하며, 적대적 귀인성향과 분노하는 성향 때문에 지나치게 반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반응 패턴 또한 공격적인 경우가 많았다. 즉, 공격적 피해아의 이러한 공격적인 특성이 또래의 긴장과 공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Olweus, 1978, 1993a; Stephenson & Smith, 1989).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공격적 피해아가 피해를 당하는 이유로 그들 자신의 공격성을 들었고, 이들을 공격적 피해아라 명명하였는데 이는 다소간 피해경험에 초점을 맞춘 설명과 명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아의 공격성과 대비되는 공격적 피해아의 공격성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행동보다는 가해행동에 초점을 두어 기존연구에서 공격적 피해아로 구분된 아동을 ‘가해피해아’라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가해피해아와 가해아의 공격성을 세분화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격성의 하위 변인별로 두 집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공격성을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가해행동의 성격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한 요인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과 개인변인을 탐색해보아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나타내는 공격성의 차이와 함께 그 관련변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초기 청소년의 발달적 과업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진 가족변인의 하나로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들 수 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나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 가치관의 형성과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또래관계 적응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적응에 다양한 장애를 초래하며 공격성의 증가 또한 그 일부분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역기능적 또는 폐쇄적 의사소통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김수진, 2001; 노정화, 2002; 신소정, 2007; 지선영, 2005). 즉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경우 자녀의 스트레스가 적고 이로 인한 문제행동의 발생 또한 적으나,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폐쇄적인 경우 자녀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 뿐 아니라 민주적인 문제해결법을 학습할 기회도 적어져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행동이나 비행이 증가하고 공격적 성향도 높아지게 된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조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공격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달리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노정화, 2002). 따라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의식적 정서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부적 상관이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은 유의하게 낮은 성향을 보였다(이백철, 김영희, 김영란, 2006; 이세연, 2008; 하영희, Edwards, 2004).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며, 자신의 중요성이나 가치 등을 믿는 정도를 말한다. 이를 고려하면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부적 상관관계는 청소년의 공격적인 성향이 도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폭력이나 공격적 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을 때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형태로 공격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보기와 강석기(2002)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보다는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가해피해아가 또래에게 지나치게 반응하는 반응적 공격성을 보여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를 경험한다고 설명한 선행연구(Olweus, 1978, 1993a; Stephenson & Smith, 1989)와 일맥상통하면서도 다소 다른 접근의 가능성도 제시하는 연구결과로, 가해피해아가 먼저 또래를 자극하고 공격하여 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보다는 괴롭힘을 당하

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그에 대한 분노의 반응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춘아(2001)는 청소년의 직접적인 공격성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간접적인 공격성을 설명하는 변인의 하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하였다. 이 역시 청소년이 공격성을 나타내는 원인 중의 하나가 피해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자아의 손상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구결과이다.

공격성을 설명하는 자의식적 정서와 관련된 또 다른 변인으로 수치심을 들 수 있다. 공격성의 심리적 원인으로 자아와 관련된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아존중감과 같이 자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룬 변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수치심과 같은 자아의 부정적인 측면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표상으로 자아에 대해 무가치하다거나 무력하다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Menesini, Sanchez, Fonzi, Ortega, Costabile, & Lo Feudo, 2003). 수치심과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연속선상에서 반대의 극단점에 대치하고 있는 변수들은 아니지만(한세영, 2009),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공격성이 부적 상관이 있음을 고려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인 수치심이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가질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소수의 연구(한세영, 2007; 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2009)도 청소년의 수치심이 강한 경우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자아에 대한 좌

절감이 공격적 성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심과 공격성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아직은 매우 부족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파악하고자 하는 가해피해아의 공격성은 피해경험으로 인한 좌절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어 수치심이라는 자아에 대한 좌절감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와의 관련성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가해아와 가해피해아의 공격적 특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시도보다는 두 집단 간에 개인변인 또는 가족변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력해왔다. 소수의 연구가 두 집단의 공격적 특징을 구분하려 하였으나 단순한 구분에 그쳐, 각 집단의 공격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자아 관련 변인과 부모관련 변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이렇듯 가해피해아와 가해아의 공격성 특징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매우 한정되어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해피해집단이 가해집단과 달리 피해경험과 더불어 특히 발달시키게 되는 공격성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두 집단 간의 가해행동을 특징짓는 요인의 하나로 간주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또래에 대한 구체적인 괴롭힘 행동을 묘사한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조사하여 집단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그들의 전반적인 공격적 성향을 비교하여 차이를 파악한 후, 공격성을 설명하는 관련변인으로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자의식적 정서인 자아존중감과 수치심을 살펴본다. 두 집단의 공격성이 어떤 변수와의 상관으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초정

보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변인들이 각 집단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여 학교현장에서 가해아와 가해피해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공격성은 차이가 있는가?
- 2)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의식적 정서(자아존중감과 수치심)는 차이가 있는가?
- 3)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공격성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자의식적 정서(자아존중감과 수치심)의 상관관계는 차이가 있는가?
- 4) 자의식적 정서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전광역시 1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를 통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남학생 187명, 여학생 172명)인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은 연구자에 따라 아동후기로 분류하기도 하나, 신체적 조속으로 인해 앞당겨진 사춘기 등을 고려하여 초기청소년기에 포함시키는 최근의 연구시도를 따라 본 연구에서도

초기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최근 또래 괴롭힘의 하향연령화 현상도 고려하였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일반아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는 가해집단(57명, 남아 24명, 여아 28명)과 가해피해집단(126명, 남아 83명, 여아 43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배부되었고, 교실에서 약 20분에 걸쳐 작성한 뒤에 다시 회수되었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0.19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8.04세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91명(27.5%)이었고, 대졸 이상이 240명(72.5%)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134명(40.4%), 대졸 이상이 198명(59.6%)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해 및 피해행동

또래에 대한 가해행동은 Crick과 Werner (1998)의 척도를 박보경(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박보경의 번안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그 중 직접적 공격성(5문항)은 “나는 아이들을 때리거나 주먹질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관계적 공격성(5문항)에는 “나는 어떤 아이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나쁜 말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한다” 등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의 자가보고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에 대한 가해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다.

또래에 의한 피해행동은 Crick과 Bigbee (1998)의 척도를 번안한 박보경(2003)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박보경의 번안척도는 총 9문항으로 또래에 의한 직접적 괴롭힘(4문항)과 또래에 의한 관계적 괴롭힘(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적 괴롭힘은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맞는다” 등이, 관계적 괴롭힘에는 “집단활동이나 놀이시간에 누군가 나에게 화가 나서 집단에서 나를 따돌린다” 등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은 Likert식 4점 척도를 통해 자가보고를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로부터 피해를 많이 입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Durkee(1957)가 제작한 공격성 진단검사와 황정규(1964)의 공격욕구검사를 참고로 하여 문재경(1998)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격성의 영역을 신체, 언어, 적의, 흥분, 부정, 우회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신체 영역(6문항)은 공격대상에게 신체적 상처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성향을 의미하고(“누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맞아서 때린다.” 등), 언어 영역(6문항)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사회적인 해를 끼치고자 하는 언어적 반응을 의미한다(“나는 화가 났을 때 심한 말을 한다.”, “나는 미운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를 좋아한다.” 등). 적의성 영역(5문항)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경계하는 경향을 뜻하고(“나는 때때로 미워하거나 질투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 “친구가 나

모르게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등), 흥분성 영역(6문항)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흥분하는 경향을 의미하며(“나는 누군가가 나를 놀리면 크게 화를 낸다.”,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등), 부정성 영역(6문항)은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나는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약속을 정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잘난 체 할 때는 일부러 천천히 일함으로써 반감을 표시한다.” 등). 우회적 영역(6문항)은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고집, 거부적 태도, 꾸물거리기, 상대방 무시 등의 행동 등을 포함한다(“나는 짓궂은 장난을 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좀 무례한 행동을 한다.” 등).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공격성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5, 언어적 공격성은 .73이며, 적의성은 .81, 흥분성은 .70, 부정성은 .65, 우회적 공격성은 .73이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느낌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83)의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Likert 식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높고,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3이다.

수치심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정서적 표상의 일부로,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낮으며, 스스로를 부적절하고 결핍되고 무기력하고 작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Kaufman, 1989;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Wells & Jones, 2000; 서주연, 2006).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한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 척도(Tangney & Dearing, 2002) 중 수치심의 영역에 해당하는 5문항을 아동학 연구자 2인이 국내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지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다음,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는 내가 가치 없고, 무기력하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0이며,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윤희(1990)가 번안한 것을 토대로 김연화(2005)가 아동에게 맞는 용어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방성 10문항과 폐쇄성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나, 가해 및 공격적 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상관이 지속적으로 밝혀져 온 폐쇄적 의사소통 10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폐쇄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부정적이고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의 Cronbach's alpha는 .81이며,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의 Cronbach's alpha는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로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가해행동점수와 피해행동 점수를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가해행동점수는 평균보다 높고 피해행동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가해집단으로, 가해행동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피해행동점수 또한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가해피해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위와 같은 집단분류를 바탕으로 우선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의 공격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존감 및 수치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격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존감 및 수치심간의 상관관계가 두 집단에서 동일한지를 검증하고자 Pearson의 상관계수와 Fisher의 Z 점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집단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존감 및 수치심이 적의적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본 각 변인들의 분포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제시된 평균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각각의 문항 값으로 나눈 값의 평균이다.

표 1. 각 변인들의 분포 (N=359)

변인	평균	표준편차
가해행동	1.83	.53
피해행동	1.62	.60
공격성	신체	2.06
	언어	2.15
	적의	2.36
	흥분	2.15
	부정	2.26
	우회	2.16
폐쇄적 의사소통	아버지	2.49
	어머니	2.36
자존감	2.76	.73
수치심	1.88	.68

1.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의 공격적 행동의 차이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의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2). 집단에 따라 적의성($t=-2.48, p<.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가해피해아가 가해아보다 적의성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 공격성의 다른 영역에서는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표 2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공격성의 차이

	집단		t
	가해집단 (n=52)	가해피해집단 (n=126)	
	M(SD)	M(SD)	
신체	2.30 (.54)	2.35 (.47)	-.61
언어	2.41 (.48)	2.41 (.42)	.01
적의	2.34 (.47)	2.58 (.62)	-2.48*
홍분	2.30 (.55)	2.44 (.54)	-1.47
부정	2.46 (.48)	2.37 (.48)	1.07
우회	2.38 (.61)	2.46 (.49)	-.89

* $p < .05$

않았다.

본 연구는 가해행동이 높게 나타난 두 집단, 즉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또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행동이 각각 다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후에는 여러 가지 공격성 중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적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두 집단의 적의적 공격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수치심의 차이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수치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자아존중감($t=3.64$, $p<.001$)과 수치심($t=-3.71$, $p<.001$)은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해아의 자아존중감이 가해피해아보다 높았으

며, 가해피해아의 수치심이 가해아보다 높았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간의 적의적 공격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수치심의 상관관계의 차이

연구결과 1에서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적의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상관관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해아의 적의적 공격성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가해피해아의 적의적 공격성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뿐 아니라 수치심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유의한 상관관계의 유무 뿐 아니라 상관계수의 크기 또한 다르게 나타났기에,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자 Fisher의 Z점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을 .05로 설정할 때의 Z 점수의 기각값은 $+1.96$ 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유의한 차이는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적의적 공격성, 수치심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버지와 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이 가해피해아보다는 가해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수치심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은 가해아보다는 가해피해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표 3.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의식적 정서의 차이

		집단		t
		가해집단 (n=52)	가해피해집단 (n=126)	
		M(SD)	M(SD)	
폐쇄적 의사소통	아버지	2.46 (.71)	2.56 (.66)	-0.87
	어머니	2.32 (.64)	2.47 (.65)	-1.43
자아존중감		3.00 (.78)	2.58 (.66)	3.64***
수치심		1.80 (.59)	2.18 (.65)	-3.71***

*** $p < .001$

표 4.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적의적 공격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의식적 정서의 상관관계

		적의적 공격성	폐쇄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수치심
			아버지	어머니		
적의적 공격성		--				
폐쇄적 의사소통	아버지	.54*** (.25**)	--			
	어머니	.46*** (.26**)	.77*** (.40***)	--		
자아존중감		-.19 (-.12)	-.32* (-.15)	.24 (.02)	--	
수치심		.19 (.50**)	.33* (.15)	.24 (.14)	-.61*** (-.35**)	--

* $p < .05$, ** $p < .01$, *** $p < .001$

가해집단 (가해피해집단)

표 5.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의 공격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의식적 정서의 상관관계의 차이 검증

		적의적 공격성	폐쇄적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수치심
			아버지	어머니		
적의적 공격성		--				
폐쇄적 의사소통	아버지	2.07	--			
	어머니	1.37	3.53	--		
자아존중감		-.42	-1.07	-1.57	--	
수치심		-4.39	1.14	-2.28	-2.04	--

4.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수치심이 적의적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4를 위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 지수를 알아본 결과 1.01-1.98로 다중공선성이 심각하지 않았다. 적의적 공격성에 대해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수치심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표 6와 같다.

우선, 성과 연령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서 성과 연령을 투입하였다.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모두에서 성과 연령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해집단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아버지와

폐쇄적 의사소통($\beta=.45, p<.05$)이 적의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44, p<.01$). 자아존중감과 수치심을 투입한 3단계에서 역시 아버지와 폐쇄적 의사소통($\beta=.44, p<.05$)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F=3.50, p<.01$), 각 단계의 설명력은 32%로 동일하였다.

가해피해집단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beta=.18, p<.10$)이 적의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과 수치심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수치심($\beta=.48, p<.001$)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F=9.38, p<.001$), 설명력은 11%에서 32%로 증가하였다.

표 6.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의식적 정서가 적의적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적의적 공격					
		가해집단			가해피해집단		
		1단계(β)	2단계(β)	3단계(β)	1단계(β)	2단계(β)	3단계(β)
일반적 배경	성(dummy)	.25	.10	.11	-.09	-.06	-.10
	연령	-.22	-.12	-.12	.18	.13	.10
폐쇄적 의사소통	아버지		.45*	.44*		.14	.10
	어머니		.05	.05		.18+	.13
자아존중감				.01			.04
수치심				.04			.48***
R^2		.10	.32	.32	.05	.11	.32
ΔR^2			.22	.00		.06	.21
F		2.86	5.44**	3.50**	2.92	3.85**	9.38***

+ $p<.10$,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에서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청소년의 가해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이 보이는 공격성의 차이를 검증하고, 관련변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차이가 있다고 밝혀진 공격성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후 집단별 상관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가해집단의 가해행동과 외형적으로는 유사하게 보이는 가해피해집단의 가해행동의 기저에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 피해경험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의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해피해아의 적의적 공격성이 가해아보다 더 높았다. 그 외 다른 공격성의 영역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우회적 공격성에서는 두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공통적인 특성은 가해행동이다. 또래를 괴롭히는 행동을 많이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되, 가해집단은 피해를 크게 경험하지 않으나 가해피해집단은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 피해의 경험까지도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두 집단의 특징은 피해경험의 유무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가해행동이나 공격적 패턴의

차이로 설명되어야 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Olweus, 1978, 1993a; Stephenson & Smith, 1989)에 따라 가해행동의 어떠한 특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자(이춘아, 2001)는 피해를 입은 경험으로 인해 가해행동이 그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기도 해서 가해피해집단의 상반된 두가지 행동의 공존은 그 선후관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두 행동의 인과관계는 밝히기 어려우나, 본 연구의 목적은 가해집단으로부터 구분되는 가해피해집단의 공격성의 속성을 세분화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경험 및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먼저 두 집단의 공격성의 여섯 하위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신체, 언어, 흥분, 부정, 우회의 영역에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고 적의의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해집단으로부터 구분되는 가해피해집단의 공격적 성향을 암시한다. 즉, 가해집단의 가해행동에 비해 가해피해집단의 가해행동에는 적의적 공격성이라는 심리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적의적 공격성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경계하는 경향(“나는 때때로 미워하거나 질투심으로 가득찰 때가 있다.”, “친구나 모르게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등)으로, 피해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피해집단이 지나치게 반응적이며 적대적 귀인성향

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Olweus, 1978, 1993a; Stephenson & Smith, 1989)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가해피해아들은 가해아에 비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호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래를 신뢰하지 않고 경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집단의 공격적 성향의 차이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은 다섯 가지 공격성의 유형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집단은 언어적 신체적으로 공격성을 표현하며, 부정적으로 흥분하는 성향 또한 유사하고 간접적인 공격성의 수준조차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즉, 타인을 실제로 공격하는, 가시적인 공격적 행동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들의 차이는 공격적인 행동의 심리적인 기저에 해당되는 적의성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경험이 이러한 적의적 공격성의 원인이고, 피해경험이 적의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쳐 적의적 공격성 때문에 가해행동을 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해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가해피해집단의 적의적 공격성을 가해피해집단의 한 특성으로 파악해서 피해경험과의 관련성을 탐색해야 한다는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둘째,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에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자아존중감과 수치심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해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수치심이 낮았으며, 가해피해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수치심이 높아, 두 집단이 서로 상반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의 청소년이 동일하게 또래를 괴롭히는 가해행동을 하되, 그 심리적 배경이 상이함을 드러내준다. 즉, 가해아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가해피해아는 열등감과 수치심의 분출구로 가해행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가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가해행동과 무관하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에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두 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비슷한 정도로 기여한다는 뜻으로, 두 집단 모두 다른 변수들에 비해 부모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여러 가지 공격성 중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적의적 공격성을 기준으로 볼 때, 가해아의 적의적 공격성은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가해피해아의 적의적 공격성은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뿐 아니라 수치심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적의적 공격성 간에는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모두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나 부모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신소정, 2007; 지선영, 2005); 노정화, 2002; 김수진, 2001). 청소년이 부모에게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지 못하고 경계하거나 믿지 못하며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느

꿈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또래관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통로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경계하고 두려워했듯이 또래나 타인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즉, 부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방식이 원형이 되어 타인을 경계하는 공격적인 마음인 적의적 공격성으로 확장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치심은 가해피해집단에서만 적의적 공격성과 상관이 있었다. 이 또한 수치심이 클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한 소수의 선행연구결과(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2009; 한세영,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이 가해집단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가해피해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가해아도 적의적 공격성을 가질 수 있으나, 그들의 적대적 태도는 수치심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자아에 대한 좌절감이나 부정적인 정서 없이 상대방에게 적의적 공격성을 보이는 가해아와 달리, 가해피해아의 경우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방에 대한 적의적 공격성에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적의적 공격성을 보이더라도 가해아와 가해피해아의 심리적인 배경이 다름을 의미하며, 이는 곧 두 집단에 대한 치료와 교육의 접근 또한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위에서 해석된 두 집단 간 상관관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상관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자 Fisher의 Z점수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와의 폐

쇄적 의사소통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이 가해피해아보다는 가해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수치심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은 가해아보다는 가해피해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두 집단 간에 수치심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해석될 수 있으나,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데 비해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하다. 즉,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계수나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계수가 모두 가해피해집단보다는 가해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유의한 것은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적의적 공격성의 상관 뿐이었다. 이를 수치심과 적의적 공격성간의 상관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와 종합해보면, 가해집단의 적의적 공격성은 아버지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과의 상관이 크며, 상대적으로 가해피해집단의 적의적 공격성은 수치심과의 상관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결과는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적의적 공격성을 나타내는 심리적 기저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므로 두 집단에 대한 치료나 중재도 각각의 집단에 작용하는 심리적 배경요인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해아의 적의적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특히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가해피해아의 적의

적 공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아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적의적 공격성에 대해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과 수치심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가해집단의 경우,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적의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해피해집단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적의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존중감과 수치심을 투입한 3단계에서는 수치심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피해집단의 적의적 공격성은 상대적으로 수치심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으나, 다음으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이 흥미롭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해피해집단의 자아가 어머니로부터의 지지와 소통을 필요로 하는 욕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두 집단의 적의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각각 살펴보았을 뿐 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가해피해집단의 수치심의 영향력이 가해집단의 수치심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해석은 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만 가해피해집단의 적의적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른 변인보다는 수치심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밝혔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해집단과 가해

피해집단의 공격적 성향 중 차이가 있는 영역이 적의적 공격성임을 보고하였으며 자의식적 정서인 자아존중감과 수치심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의 자의식과 공격적인 성향의 특성을 밝히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가해집단의 적의적 공격성은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가해피해집단의 적의적 공격성은 수치심과 큰 상관이 있음을 분석해 두 집단의 가해행동 및 적의적 공격성에 대한 차별화된 중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초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간 상관관계의 차이검증을 시행한 것은 두 집단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의 특성상 가해나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가외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했으므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상관관계의 차이를 온전히 집단 간의 차이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가해 및 피해행동은 대상 아동의 자가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가해 및 피해행동이 또래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동임을 고려할 때, 자가보고된 가해 및 피해행동의 정도는 또래에 의해 보고된 가해 및 피해행동의 그것과 다를 수 있으며 정확도의 차이 또한 존재할 수 있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적의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

라서도 다르지만, 자녀의 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좀 더 세분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해피해집단의 특성에 접근함에 있어 그 가해행동에 무게를 둘 수도 있고, 피해경험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가해피해집단과 피해집단의 피해경험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또래괴롭힘 각 집단의 특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수진 (200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화 (2009). 또래 괴롭힘 참여유형에 관련된 변인 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윤희 (1990). 아동의 생활환경이 인터넷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세교유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정화 (200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재경 (1998). 인지적 행동수정 훈련이 아동의 공격성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보경 (2003).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갈등과 또래 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경, 한세영, 최미경, 도현심 (2004). 또래 괴롭힘 집단에 따른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모의 부부갈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45-54.
- 변보기, 강석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69-291.
- 서주연 (2006).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소정 (2007).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과 인터넷 게임중독 및 공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선보 (2000). 가정환경변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경험유형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백철, 김영희, 김영란 (2006). 소년수형자들의 자기애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3, 61-88.
- 이세연 (2008).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아 (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선영 (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내외통제성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 이지연, 황상희 (2009).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유기공포의 매개효과검증-남녀 청소년의 모형 비교-.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7(2), 3-15.

- 하영희, Edwards, C. P. (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친사회적 행동, 감정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동학회지*, 25(2), 121-132.
- 한세영 (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한세영 (2009). 아동과 청소년의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8), 1-21.
- 황성숙 (1999). 학교 내 집단괴롭힘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 (1964). *행동집단의 기술*.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D. H.Olson, H. I. McCubbin, H. Barns, A. Larsen, M. Muxen, & M. Wilson.(Eds.) *Family Inventories*. (pp5-23).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1, 343-349.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37-347.
- Crick, N. R.,& Werner, N. E. (1998). Response decision processes in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9, 1630-1639.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M.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201-218). Hillsdale, NJ: Erlbaum.
- Kaufman, J. M. (1989).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of children and youth*(5th edition). New York: MacMillan.
- Kumpulainen, K., Rasanen, E., Henttonen, I., Almqvist, F., Kresanov, K., Linnam, S. L., Moilanen, I., Piha, J., Puura, K., & Tamminen, T. (1998). Bullying an psychiatric symptoms among g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22, 705-717.
- Kupersmidt, J., B., Patterson, C., & Eickholt, C. (1989). Socially rejected children: Bullies, victims, or both? Agressors, victims, and peer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MO.
- Menesini, E., Sanchez, V., Fonzi, A., Ortega, R., Costabile, A., & Feudo, G. L. (2003). Moral emotions and bullying: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Bullies, Victims and Outsiders. *Aggressive Behavior*, 29, 515-530.
- Olweus, D. (1978). *Aff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Cambridge, MA: Blackwells.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igby, K. (1998). School children's perceptions of

-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 rel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 501-51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 Schwartz, D. (2000).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or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81-192.
- Schwartz, D., Dodge, K. A., Pettie,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chwartz, D., Proctor, I. J., & Chien, D. H. (2001). The aggressive victim of bullying: Emotional and behavioral dysregulation as a pathway to victimization by peers.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147-17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tephenson, P., & Smith, D. (1989). Bullying in the junior school. In D. P. Tattum & D. A. Lane(Eds.). *Bullying in schools*. Stoke-on-Trent: Trentham Books.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Y: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3), 469-478.
- Wells, M., & Jones, R. (2000). Children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1 차원고접수 : 2010. 01. 18.

수정원고접수 : 2010. 02. 25.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8.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h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Aggression in Bully and Bully-Victim Groups

Han, Sae-Young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aggression,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hame across bully and bully-victim group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rrelations among aggression and other variables of bully and bully-victim group,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hame on aggression in the bully and bully-victim group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9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187 boys, and 172 girls) from Daejeon c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hostile aggression of bully-victims was higher than that of bullies. The self-esteem levels of bullies and the shame of bully-victims were higher than that of their counterparts. Bullies showed a stronger correlation between hostile aggression and closed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bully-victims reported stronger correlations between hostile aggression and shame. Lastly, bullies' hostile aggression was influenced significantly by closed-communication with fathers, whereas bully-victims' hostile aggression were influenced significantly by shame and closed-communication with mothers.

Key words : Aggression, Bully, Bully-Victim,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Shame